

三九會 研究*

權純烈**

<차 례>

1. 서언	3. 삼구회의 활동 양상
2. 삼구회 취지와 회원의 면모	3.1 송정에서의 시회
2.1 삼구회의 취지	3.2 학천 송고재에서의 시회
2.2 삼구회원의 면모	3.3 『삼구회시고』의 간행
2.3 삼구회의 규약	4. 결어

1. 서언

삼구회는 일제강점기에 보수 지식인들이 시회를 통해 자신들의 존재 의미를 찾고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만든 단체이다. 창립자는 전남 영광군 유림인 六峯 李鍾宅인 것 같다. 구성원은 六峯 李鍾宅, 敬一堂 李必燮, 敬齋 金容琪, 小山 金坤, 松臯 權寧玉, 陽泉 丁大秀 등 56명이다. 지역별로 보면 이 가운데 50명은 영광 출신이고, 6명은 전북 고창군 남부 지역인 대신면과 성송면 출신이다. 그러므로 이 三九會는

* 이 논문은 2005년도 조선대학교 학술연구비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 조선대학교

영광 지역 출신을 중심으로 하고 고창의 일부 유림이 참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모임의 명칭을 삼구회로 한 것은 일년 중 양의 기운이 왕성한 三月과 九月에 모임을 개최하기 때문에 그렇게 명명한 것이다. 모임이 성사된 날짜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三月 三日과 九月 九日을 전후해서 많이 이루어졌다. 결성 시기는 1927(丁卯)년 봄이었고, 그해 가을에 첫 시회가 열렸다. 모임의 장소는 영광읍 송정이었다. 그리고 마지막 모임은 1957(丁酉)년 가을 上溪에서 있었다. 그러므로 삼구회는 31년간 유지되었다고 할 수 있다. 첫 모임에서 마지막 모임까지 31년 동안 지탱해 오면서 총 58차례의 시회를 통해서 784수의 시를 지었다. 그리고 3권이 합본된 삼구회 시집인 『삼구회시고』가 발간된 것은 1957(丁酉)년 9월이다. 이때 서문은 양천 정대수가 쓰고, 발문은 성암 이찬신이 썼다. 그런데 『삼구회시고』가 아직까지 번역되지 않아 본격적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2. 삼구회 취지와 회원의 면모

2.1 삼구회의 취지

일제 강점기 아래의 한국 지식인들의 삶은 원수와 함께 살아야 하는 참으로 견디기 어려운 비극 그 자체였다고 할 수 있다. 때문에 조국의 독립을 위해 風餐露宿하며 만주 등지를 방황하는 애국지사도 있었고, 새로운 문물을 받아들이기 위해 일본이나 미주 등지를 헤매는 무리도 있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지식인, 특히 보수 지식인들은 비록 구차한 목숨이라 할지라도 쉽게 내던질 수도 없었고, 신학문을 위해 유학의 길

을 떠날 수도 없었다. 원수와 하늘을 함께 이고 살든지 굴욕의 길을 가든지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여지는 거의 없었다. 그러던 차에 기미년 3·1 독립 만세 운동이 일어났다. 이후 조선을 보다 노련하게 통치하기 위해 도입한 문화 정책으로 인해 식민지 지식인들에게 약간의 자유가 허락된 것이다. 그래서 보수 지식인들은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언젠가 도래한 새로운 세계를 준비하기 위해 모임을 자주 갖게 되었다. 그러한 모임의 하나가 시회라고 할 수 있다. 삼구회도 일제강점기에 창립된 여러 시회 가운데 하나이다.

회 이름을 삼구라고 한 것은 무엇 때문인가? 봄 삼월과 가을 구월에 모이기 때문이다. 어쩌서 삼월과 구월을 택했는가? 대개 덕업이 시물로 더불어 그 창성함을 함께 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사람이 모임을 귀히 여기는 것은 서로 이익됨이 있기 때문이다. 이택강습의 말과 회우보인의 가르침을 보면 교유의 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세도가 점점 내림으로부터 사류의 모임에 숭상하는 것이 한결같지 않다. 난정에서 필묵으로 모인 것과 향산에서 문장으로 모인 것은 이름하기를 당시의 높은 흥취라고 하나 다만 자리를 함께 하여 노자, 장자의 이야기나 하고 노년의 시기에 불교의 느낌이나 말한 것이다. 애석하게도 결점을 면하지 못하였다. 낙사의 기영회와 진술회 같은 것은 중한 공훈을 나타내고 청고함을 바라보니, 뜻과 행실이 진실로 말세에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몇 가지에 나아가면 또한 그 시비와 고하의 나뉘는 볼 수가 있다. 아, 이 모임의 설립이 이미 십수 년이 되었는데 아직도 시안에 첫머리를 쓴 글이 없으니, 실로 여러 숙덕의 겸양함 때문에 지연된 것이다. 근일에 새로 수정을 더하게 되어 여러 사람들이 대수에게 명하여 서술하게 하니, 대수가 사양타 못해 마침내 앞말로써 거듭하고 공경히 다음과 같이 쓴다.

무릇 우리 동지가 해마다 두 번씩 모임에 어찌 일찍이 세속이 숭상하는 난초를 씻고 국화로 술을 담은 일로써 한가함을 취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던가? 다만 시절의 사물이 번창함을 보고는 마음이 번창하기를 바라고, 시절의 사물이 이루어짐을 보고는 학문이 이루어지기를 바랐으니, 반드시 문으로 강습하여 도가 더욱 밝아지고, 선으로써 서로 도와 덕이 날로 정진

하여 가슴속이 전혀 사사 거짓의 막힌 것이 없고, 곳을 따라 천리의 유행을 보고 얻어야 할 것이다. 이에 기수가 춘풍의 낙을 거슬러 올라가 만물의 생의함과 완전히 합하고 하남 정자의 가을날 읊을 것을 화답하고 더불어 사시의 아름다운 흥을 한가지로 한다면 이 모임이 거의 한 단체의 군자의 모임이 이루어질 것이다. 난정의 모임과 향산의 모임에 비하면 서로의 거리가 실로 멀고 또한 어찌 다만 낙사에만 비할 것인가? 속으로 원하노니 계획을 같이 한 어른과 젊은이가 다행히 사람으로서 말을 폐하지 말고 여기에 가려서 쓴 것이 있을지이다. 1)

양천 정대수가 쓴 「三九會案序」이다. 정대수는 1882(壬午)년 생으로 자는 士中이며, 호는 陽泉이다. 영광군 불감면 봉동 출신이다. 그가 삼구회에 참여했을 때의 나이는 46세였다. 정대수는 삼구회의 주도 인물이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호남의 문장으로 이름을 떨쳤었다. 정대수의 이 「삼구회안서」에는 삼구회의 취지를 알 수 있는 몇 가지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첫째, 삼구회라는 회의 명칭에 대한 설명이다. 삼구회라고 한 것은 봄 3월과 가을 9월에 모이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陽의 기운이 가장 강한 계절을 통해 자신들의 덕업도 함께 창성하기를 바란 것이다. 둘째, 麗澤講習의 말과 會友輔仁의 가르침이다. 麗澤講習은 “붙어 있는

1) 會名三九 何也 會以春秋九也 何取乎三九 蓋欲德業之與時物而同其暢成也 夫人之所貴乎會 以有相益也 觀於麗澤講習之辭 會友輔仁之訓 可知交遊之有道矣 自世道寢降 士類之會 所尚不一 若夫蘭亭之翰墨 香山之文詞 號爲當時高致 但同座老莊之談 暮筵浮屠之感 惜乎其未免瑕玷也 至若洛社之耆英眞率 則顯重動望清高 志行固非叔季之所易得也 就此數者 亦可見其是非高下之分矣 嗚呼 此會之設 已有十數年所 而尙闕案之文 寔緣諸宿德之謙讓遷延也 比因新加修整 僉命大秀而敘之 大秀辭不獲 遂申之以前說 而敬題曰 凡我同志之課歲再會 曷嘗以谷尙之祓蘭斟菊 爲偷閒計哉 第觀於時物之暢 而心也要暢 時物之成而學也要成 必也以文講習 而道益明 以善輔翼 而德日進 以至於胸中了無私僞之間隔 隨處見得天理之流行 於是乎邇沂上春風之樂 而渾合萬物之生意 廣河南秋日之吟而與同四時之佳興 則此會也 庶幾乎做成一團君子人矣 視諸蘭亭香山 相去固遠 而亦奚特洛社之比哉 竊願同案長少之幸不以人廢言 而有所擇用於斯云爾 (丁大秀, 「三九會案序」).

澤이 뉘이니, 군자가 보고서 봉우들과 강습한다.”²⁾에서 나온 말이다. 동도지인들이 서로 모여 강습하는 것은 서로 유익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선유들이 이르길 천하에 기뻐할 만한 것이 봉우들과 강습하는 것보다 더한 것이 없다.”³⁾고 했다. 會友輔仁은 “군자는 문으로써 벗을 모우고, 벗으로써 인을 돕는다.”⁴⁾는 증자의 가르침에서 나온 말이다. 벗과 더불어 학문을 강하면 도가 더욱 밝아지고, 벗의 좋은 점을 받아들인다면 자신의 덕이 날로 진전되기 때문일 것이다.

많은 유학자들이 이런 가르침을 받아 모여서 강독회를 갖고 시회도 했던 것이다. 대개의 경우 시회가 잦다 보면 음풍농월과 노장적인 청담에 빠질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그들이 경계한 것은 난정회의 모임이나 향산사의 모임이다. 그들은 麗澤講習의 말과 會友輔仁의 가르침을 통해서 천리의 유행을 보고 얻고자 했다. 이런 점으로 보아서 어두운 시대 절망만이 드리운 사회에서도 보수 지식인들이 희망을 버리지 않고 미래의 싹을 띄우려고 애쓰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2.2 삼구회원의 면모

삼구회에 관련된 여러 잡다한 사실과 사정은 삼구회와 삼구회 회원들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자료를 비교적 많이 제공해 주는 것이 「三九會詩稿跋」이다. 발문은 일반적으로 그 책과 관련된 여러 정보를 비교적 자세하게 제공해 준다. 이 「삼구회시고발」도 그러한 기능을 어느 정도 수행하고 있다.

나라간 망한 후 1927(정묘)년 봄에 육봉 이 선생이 영광과 성송의 덕을 함께 한 모모의 선비로 더불어 삼구회를 창설했다. 한편으로는 도의를 강론하고 한편으로는 회포를 읊으니 자못 옛 사람들의 진솔한 맛이 있었다. 그러나 적막한 천지에 다시 무슨 즐거움이 있는지 알지 못하게 되었다. 지조와 절개의 지킴이 있는 것과 의관을 고치지 않은 것은 금화의 제현에게 부끄러움이 없다고 할 수 있다. 이런 까닭으로 뒤에 흠모하는 선비들이 점점 더욱 나아가 이에 오십육 명에 이르렀다. 아, 세월이 물과 같아서 이제 삼십 년의 사이에 세상을 떠난 이가 이미 많고 생존한 사람이 아주 적게 되었다. 그런데 다만 시의 초고 1책 3권이 참으로 오늘의 유적이 되었다. 이번 강회시에 이르러 이에 인쇄를 하여 집안마다 주고 오래 전할 계획을 하니 누가 불가하다고 하겠는가? 이에 약간의 재물을 모아 인쇄업자에게 맡겼다. 아아, 후손의 여러 사람들은 대대로 계를 치루고 시를 지어 옛 자취를 밟을 수 있겠는가? 내가 비록 문장을 못하나 또한 이 일에 참여하였기로 대략 전말을 서술하여 후인들에게 권한다.⁵⁾

이찬신이 지은 「삼구회시고발」이다. 이찬신은 1894(甲午)년 생으로 자는 伯康이며, 호는 惺菴이다. 영광군 묘량면 몽강 사람이다. 그는 醒菴과 惺菴 두 개의 호를 썼던 것 같다. 1934(甲戌)년 14회 가을 시회가 몽강에 있는 송당 이동신의 집에서 열렸는데 이때 비로소 李醒菴이라는 인물이 등장한다. 그리고 1935(乙亥)년 다음부터는 李惺菴이라는 인물이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서 이찬신이 醒菴이라고 썼던 호를 惺菴으로 바꾼 것 같다. 이찬신의 이 발문을 통해서 몇 가지 정보를 확보할 수 있다. 첫째, 삼구회의 창립에 대한 기록이다. 삼구회의 창립 시기는 1927(丁未)년이다. 그리고 창립자는 영광의 유림인 이종택이라는 것이

2) 麗澤兌 君子以朋友講習 (『周易』, 兌卦, 象傳).
3) 先儒謂 天下之可說 莫若朋友講習 (『周易』, 兌卦, 傳).
4) 君子以文會友 以友輔仁 (『論語』, 顏淵第十二).

5) 社屋後丁卯春 六峯李先生 與箕松間同德某某之士 倡設三九會 一以講論道義 一以風咏衿懷 殊有故人真率之味 而不知寥寥天地 復有何樂矣 蓋其志槩之有守 衣冠之不改 可謂無愧金華諸賢也 是以後來 慕向之士 稍稍益進 乃至五十六人矣 噫日月如流 于今三十年之間 謝世已多 存者渺然 而第其詩草一冊三卷 誠是今日遺蹟也 及茲講會時 乃謀印出 爲家奔壽傳計 誰曰不可乎 於是 鳩聚若干財 付劔剛氏 嗚呼 後承諸人 其能世世講信言志 以蹈舊轍否 余雖不文 亦忝是役 略敘顛末 以勸夫來者云爾 (李讚信, 「三九會詩稿跋」).

다. 둘째, 회원들의 신상이다. 삼구회의 회원 구성은 영광과 성송 지역 출신이라고 되어 있다.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남 영광군 출신이 50명이고, 전북 고창군의 출신이 6명이다. 전북 고창군 출신 6명은 고창군의 남부 지역인 대신면 출신이 5명이고 성송면 출신이 1명이다. 그러므로 이 삼구회는 영광 지역 출신을 중심으로 하고 고창군의 남부 지역인 대신면과 성송면 일부 유림이 참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구성원을 영광과 성송 유림이라고 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더구나 성송면 출신은 권영옥 한 사람뿐이기 때문이다. 아마 권영옥이 고창 출신으로는 가장 왕성한 활동을 한 회원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셋째, 후손들에 대한 당부이다. 후손들에게 대대로 계를 치루고, 시를 지어 옛 자취를 따르기를 당부하고 있다. 이것은 대를 이어서 선조의 유업을 본받기를 바란 것이다. 이것은 삼구회의 규약에도 명시되어 있는 사항이기도 하다.

23 삼구회의 규약

어떤 모임이나 그 모임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회칙이 있기 마련이다. 회칙이란 회원 상호간에 지켜야 할 최소한의 의무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때문에 회칙은 회원의 개인적 활동을 지나치게 제약해서는 안 된다. 그야말로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그래야만 친목을 유지할 수 있다. 지나치게 강제성을 띠면 이익 단체와 다른 친목 단체는 오래도록 유지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그래서 삼구회의 회칙도 최소한의 기본적인 것만 규정하고 있다.

- 一. 여러 회원들은 문의를 강론하고 술을 마시고 시를 읊고 회포를 서술한 뜻으로써 회안을 작성한다.

- 一. 모이는 날씨는 봄 삼월 삼일과 가을 구월 구일로 확정한다.
- 一. 앞의 날짜에 각각 읊시를 완성하여 한 부를 편집하여 노는 자취를 기록한다.
- 一. 여러 회원 중에 만약 참석하지 못하게 된다면 그 아들과 손자가 와서 계속하여 영원히 세세의 호의를 닦는다.
- 一. 약간의 돈을 모아 있는 대로 (형편에) 따라 빚 놀이를 하여 시고를 만드는 일에 쓸 것을 대비한다.⁶⁾

삼구회의 회칙은 5개항으로 되어 있다. 첫 번째 항목인 문을 강론하고 시를 짓는다는 것은 삼구회의 창립 취지와 궤를 같이 하고 있다. 두 번째 항목은 봄 3월 3일과 가을 9월 9일로 한다는 삼구회의 모임 시기에 대한 규정이다. 세 번째는 시회 때 짓는 시의 문체에 대한 규정이다. 시회 때마다 읊시 한 수를 지어 모임의 자취를 삼는 것은 시회의 일반적 규정이다. 읊시는 대우, 압운, 평측 등 형식면에 있어서 규정이 매우 엄격하다. 읊시 중에서도 칠언을 짓는 것이 일반적이고 오언을 짓는 예외적인 일이다. 흔히 시상에 따라 시의 형태를 정한다. 짧은 시상은 오언절구나 칠언절구로, 좀 긴 시상은 오언을 지어 칠언을 지어, 유장하고 매우 긴 시상은 배율이나 고시로 창작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오언보다는 칠언이 많이 창작되었고 우수한 작품도 많다. 오언보다는 칠언이 시상을 전개하기가 조금은 용이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조선의 시인들에게 어쩔 수 없는 한계이기도 하다.⁷⁾ 삼구회의 경우를 보면 1937(丁丑)년에 춘회 모임이 인산에서 개최되었다. 이때 인산에서는

6) 條約

- 一. 諸員以講論文義 觸詠敘懷之意 作成會案事.
- 一. 會日以春三三秋九九 確定事.
- 一. 右日各成詩律 編一部 以記遊蹟事.
- 一. 僉員中 如至不參 則其子若孫來續 永修世好事.
- 一. 鳩聚若干金 隨存拮据 以備稿役所用事.

7) 권순열, 『松川 梁應鼎의 詩文學 研究』(월인, 2002), 106쪽 참조.

두 번의 시회가 있었다. 19회 시회에서는 칠언율시를 짓고 익일 호수에서 뱃놀이하면서 갖은 20회 시회서는 전부 오언율시를 지었다. 아마 연속되는 시회인지라 변화를 준 것으로 보인다. 네 번째는 모임의 참석에 대한 규정이다. 모임이 있으면 참석해야 하는 것은 회원의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이다. 그런데 삼구회에서는 회원이 참석하지 못할 경우 아들이나 손자가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는 선조의 좋은 인연을 후손들이 이어가기를 바라는 염원이 담겨 있다. 실제로 아들이나 손자들이 아버지나 할아버지를 대신해서 시회에 참석한 경우는 여러 차례 있었다. 다섯 번째는 시고의 발간 준비이다. 당시만 하더라도 책을 출판한다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한 사람의 재력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고, 여러 회원들이 각출한다고 해도 짧은 시간에 마련한다는 매우 어려운 일이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회비를 조금씩 모아 출판자금을 마련했던 것이다. 『삼구회시고』도 그러한 피와 땀의 결과로 세상의 빛을 보게 된 것이다.

3. 삼구회의 활동 양상

3.1 송정에서의 시회

삼구회는 1927(丁卯)년 봄에 창립되었고, 첫 모임은 그해 가을에 영광군 영광읍 송정에서 있었다. 영광읍이 아마 회원들이 모이기에 가장 편리한 장소였기 때문일 것이다. 당시 송정에는 만송 신극회가 살고 있었다. 이때 참가한 사람은 육봉 이종택, 경재 김용기 등 17명이었다. 아마 이들이 삼구회 초창기 회원들이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런데 이

날 참가한 17명만이 전체 회원은 아니었던 것 같다.

十九名題歎一少요 열아홉 사람이 이름을 쓰는데 한 명이 부족한 것을 탄식하고
六旬齒列愧雙留라 육순의 나이에 들었는데 쌍으로 머무는 것이 부끄럽네.

박민준이 지은 시의 함련이다. 박민준은 1869(己巳)년 생으로 자가 文玉이며, 호는 九溪이다. 영광군 백수면 조산 출신이다. 박민준이 ‘열아홉 사람이 이름을 쓰는데 한 명이 부족한 것을 탄식한다.’고 한 것은 이십 명 중에 한 명이 세상을 떠난 것을 암시한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처음 구성원은 20명 정도이고 이날 모임에는 17명만이 참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때 사용한 운자는 평성 尤 윤통의 秋, 流, 留, 樓, 收였다. 아마 계절이 가을인지라 첫 운자를 秋字로 시작한 것 같다. 그런데 오강 김연기는 운자 留와 樓를 바꾸어 사용하고 있다. 뚜렷한 이유를 알 수는 없지만 율시가 갖는 제약성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있다고 보아야 할 것 같다. 다른 회원들의 작품에는 그러한 경우가 거의 없다.

白社團成太平秋에 백사가 함께 태평스런 가을을 이루어
老懷端合託仙流라 늙은 감회가 정히 선류에 의탁한 것이 합당하네.
松隣舊夢重陽別이요 솔 곁의 옛 꿈은 중앙절에 이별을 하고
泉上眞緣吉日留라 샘가의 참 인연은 길일에 머무네.
胡母佳言能玉屑이요 호모의 아름다운 말은 옥가루가 되었고
陳君豪氣任高樓라 진군의 호기로운 기상은 높은 누각에 있네.
有錢若可青年買인댄 돈이 있어 만약 청춘을 살 수 있다면
隨處風物箇箇收라 곳곳마다 풍물을 낚날이 거두어들이겠네.

『삼구회시고』의 첫머리에 있는 이종택의 시이다. 이종택이 삼구회의 좌장인지라 그의 시를 맨 처음에 수록한 것 같다. 이종택은 1865(乙丑)년 생으로 자는 亨重이며, 호는 六峯이다. 영광군 대마면 남산 출신이다. 그의 시에는 여러 고사가 인용되어 있어 이 시가 지니고 있는 의미망을 제대로 구축하기는 어렵다. 이종택은 이 시에서 삼구회 모임을 白蓮社에 비유하고, 자신도 그런 모임에 참여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다. 백련사는 東晉의 중 慧遠이 廬山 東林寺에서 慧永·慧持·劉遺民·雷次宗 등과 함께 염불 수행을 위하여 결성한 단체이다. 西方淨土에 往生할 것을 誓願하고, 연못을 파서 白蓮을 심어 白蓮社라 일컬었다. 그 후 唐나라 白居易가 香山에서 慧遠의 故事를 본따 모임을 만들었는데 그것을 백련사라고도 하고 향산사라고도 한다. 향산사라고 하는 것은 백거이가 향산에 살면서 자신의 호를 향산거사라고 했기 때문이다. 이종택이 말하는 白社는 백거이가 만든 白蓮社를 말한다. 그리고 금전이 있어 만약 청춘을 살 수 있다면 곳곳마다 아름다운 경치를 모두 거두어들일겠다는 것이다. 이때 이종택의 나이는 63세였다. 이미 새로운 사업을 벌일 수 있는 나이는 아니다. 그렇다고 과거로 돌아갈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자신의 앞에 놓여 있는 것은 회한뿐이었다. 그래서 과거에 자신이 소홀히 했던 대상에 대해 강한 욕구가 발동한 것이다. 물론 그것은 아름다운 경치에 대한 구경이다. 당시 선비들에게 있어 아름다운 산하는 단순히 완상의 대상만은 아니었다. 잃어버린 조국에 대한 그리움이 짙게 배어 있다. 그러므로 조국의 경물에 대한 완상은 조국에 대한 그리움의 또 다른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嶺雲深處我家留
馬驕半日方叅座
鷺謝重陽共會樓
盈耳洋洋松竹韻
各隨分量錦囊收

고개 구름 깊은 곳에 나의 집이 머물러 있네.
말이 교만해 한나절만에야 자리에 참석했고
제비 떠난 중앙절에 함께 누각에 모였네.
귀에 가득 양양한 소나무와 대나무 소리에
각기 분량을 따라 금낭을 거두네.

국사 정희면의 시이다. 정희면은 1867(丁卯)년 생으로 자는 泰賢이며, 호는 菊史이다. 영광군 불갑면 와촌 출신이다. 정희면의 이 시는 이종택의 시와는 달리 정감이 넘쳐 있다. 수련은 정희면의 여유로운 삶의 태도를 반영하고 있다. 세상의 일에 매달리다 보면 세월이 어느 겨를에 흘러가 버렸는지 혹 알 수 없을 수도 있다. 그렇다고 해서 세상의 일에 얽매어 있는 것 같지는 않다. 그저 자신의 눈앞에 펼쳐져 있는 일을 외면하지 않으면서 살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함련은 정감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 상대방의 술과 자신이 살고 있는 거처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 그런데 울타리 밑의 국화가 피는 중구절에 술이 익었다는 소식이 고개 구름 깊은 곳에 살고 있는 시인에게 전달된 것이다. 속세와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있는 시인이라 하더라도 술이 익었다는 소식만은 전혀 외면할 수 없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술이 속세와 선계를 맺어주는 매개체이며, 시인은 술을 즐기며 살고 있는 신선과 같은 존재임을 알 수 있다. 정련은 시인의 상황과 시회가 개최된 시기를 말해 주고 있다. ‘말이 교만해 한나절만에야 자리에 참석했다.’는 것은 늦게야 시회에 참석했다는 것을 말한다. 그에게는 이미 시간의 관념이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다. 그저 세상 속에서 세월과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것 같다. 하지만 그도 인간인지라 인간사가 없을 수 없다. 때문에 시회에 늦은 것이다. 그 책임을 교만한 말에게 돌리고 있다. 책임 회피가 아니라 삶의 여유가 돋보인다고 해야 할 것 같다. 미련은 시회를 하고 있는 모습을 담고 있다.

天時人事一年秋에 하늘의 때와 사람의 일 한 해의 가을
忘却塵間歲月流라 진간에 세월이 흘러간 것을 망각해 버렸네.
籬菊開辰君釀熟이라 울타리 밑 국화가 필 때에 그대의 술이 익었고

3.2 학천 송고재에서의 시회

삼구회는 산수도 즐기고 친목도 도모하면서 이곳저곳 여러 지방을 찾아다니며 모임을 가졌다. 그런데 1939(己卯)년 가을 모임을 전북 고창군 성송면 학천리 송고재에서 갖게 되었다. 이때 참석한 삼구회 회원은 주인인 송고 권영옥을 비롯하여 미산 박봉순, 농은 이경섭, 소산 김곤, 후천 정필현, 매사 박용근, 난파 강기준, 지현 강희진, 죽파 김기섭, 송당 이동신 등 10명이 참석하고 있다.

기묘년 봄 모임에 17명이 참가한 것과 비교하면 너무 적은 숫자이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명확히 알 수 없다. 『삼구회시고』는 모임에 참석해 지은 시만을 싣고 있기 때문에 다른 정황은 전혀 알 수 없는 실정이다. 약간의 부기만 있어도 회원의 면모와 시회 과정에서 있었던 여러 사정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런 기록이 전혀 없어 삼구회에 대해서 이해의 폭을 넓히기가 어렵게 되어 있다. 이념을 중시하고 자신과 집단에 관련된 정보를 소홀히 하는 사람들의 경향을 이런 데서도 볼 수 있을 것 같다. 아무튼 참석 회원이 적었던 것은 가을 추수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송고재 시회에서 사용한 운자는 東, 同, 功, 風, 終이었다. 이 운자는 평성 東의 운통으로 廣韻이다. 비교적 쉬운 운자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운자로는 자주 시를 지어보았기 때문에 이날의 시회도 별 어려움은 없었고 매우 뛰어난 작품도 나왔다.

黃禾滿野歲成功이라	누런 벼가 들에 가득하니 해가 공을 이루었네.
樽中大酒新豐味요	동이 속의 많은 술은 신품의 맛과 같고
座上清談古晉風이라	좌상의 맑은 이야기는 옛 진나라의 기풍이네.
久敬知爲君子事니	오래 공경하는 것은 군자의 일임을 아노니
相觀以善慎其終하자	서로 보고 선례저서 그 끝을 신중히 하세.

위의 시는 소산 김곤의 시이다. 김곤은 1872(壬申)년 생으로 자는 公燮이며, 호는 小山·忍齋이다. 영광군 대마면 수촌 출신이다. 『삼구회시고』에는 金小山으로 등장하나 金忍齋로 많이 알려져 있다. 당시 학식과 덕망을 갖춘 유학자로 칭송을 받았던 인물이며 제자들도 많이 두었던 것 같다. 수련은 삶의 중간에 송고재의 주인인 권영옥과 동도지인으로서 교류를 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송고는 기대했던 아들을 잃고, 오직 손자에게 희망을 걸고 양육하면서 인재에게 교육을 부탁했다. 자신이 직접 가르칠 수도 있었지만 학덕을 겸비한 인재에게 맡기는 것이 보다 낫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추정보다는 역자교지를 택한 것이다. 그러므로 인재의 입장에서 보면 송고재는 자주 찾아와 강학을 했던 도장이며, 제자의 집이기도 했다. 자주 왕래했던 곳이지만 시회 모임으로 다시 또 찾아온 것이다.

수련은 인재와 송고재 주인과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인재는 송고와 의기를 함께 했던 동도지우로 여긴 것이다. 이런 점은 송고도 마찬가지였다. 송고가 인재와 관련된 시 8수를 남기고 있는데, 송고는 인재를 학덕이 높은 출중한 선비라 하면서 북두성에 비유하고 있다.⁸⁾

함련은 주변의 경관과 가을의 풍요를 묘사하고 있다. 붉은 나무가 산을 둘러 가을이 아름답게 물들어 있고, 누런 벼가 들에 가득해 풍년이 들었음을 노래한 것이다. 학천은 마을 지형이 학의 형상이라고 한다.

箕城詞客入牟東에	영광의 시인이 고창의 동쪽에 왔는데
出處中間意氣同이라	출처의 중간에 의기가 같아졌네.
紅樹環山秋有飾이요	붉은 나무가 산을 둘러 가을의 꾸밈이 있고

8) 권영옥, 『松臯集』, 五言律詩, 「與忍齋和吟」 참조.

그런데 송고재 뒤는 대숲과 소나무 숲이 감싸고, 앞은 두 개의 샘 사이를 작은 개천이 태극을 이루며 흐르고 있다. 이 작은 개천의 주변에 논들이 널려 있다. 그러므로 이 함련은 송고재 뒤의 승경과 앞에 널려 있는 들의 풍요를 묘사하고 있는 것이다.

경련은 송고재에서 펼쳐진 시회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시회 중에 마시고 있는 술을 신평의 술에 비유하고 있다. 신평은 한나라 고조 아버지가 고향을 그리워하자 한고조가 아버지를 위해 풍패를 모방해 건설하고 그곳 주민들을 이주시킨 다음 신평이라고 이름하였다. 그런데 후에 이 도시가 맛있는 술로 유명하여 신평의 술은 한 말에 만량이라고 하였다.⁹⁾ 그리고 시회 중에 오가는 대화를 진나라 풍류에 비유하고 있다. 신평나라 永和 9(353)년 3월 3일에 왕희지, 손작, 사안 등 41명이 난정에서 계연을 베풀며 시를 읊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 청아한 모임을 본받아 많은 사람들이 모임을 만들고 풍류를 즐겼다. 송고재에서의 모임을 진나라 난정에서의 모임에 비유한 것이다. 물론 이러한 표현은 이미 도식적인 감이 짙다. 하지만 청아한 풍류를 즐기려는 욕구는 양의 동서와 시의 고금이 같을 것이다. 그러므로 삼구회 회원들이 자신들의 모임을 난정회에 비유하고 자신들의 처신을 난정회의 풍류에 비기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고 자연스런 일이라고 할 수 있다.

미련은 이 시의 결사로 서로의 다짐을 나타내고 있다. ‘久敬’은 ‘오래 사귄수록 공경한다.’는 뜻으로 공자가 안자에 대해서 평한 말이다.¹⁰⁾ 안자는 이름이 嬰이며, 자는 平仲이다. 齊나라의 재상으로 제나라 영공, 장공, 경공을 섬겼다. 세 임금에 섬기면서 근검절약하고 역행하였기 때문에 중용되었다. 안자는 제나라의 재상이 된 후에도 식사에는 한 가지 육류만을 먹었으며, 첩에게는 비단옷을 입지 못하게 하였다. 조정에 들

어가서는 임금이 하문하면, 곧고 바른말로 대답하였다. 그러나 임금에게 간언할 때는 임금의 얼굴빛에는 조금도 상관하지 않았다. 이것은 조정에서는 충성을 다할 것을 생각하고 물러나서는 잘못을 보충할 것을 생각했음을 말한다. 안자에 대해서 태사공은, “만약 안자가 지금 살아 있다면, 나는 비록 그를 위해서 마부가 되어 채찍을 잡는 일이라도 기쁨에 넘쳐 양모할 것이다.”¹¹⁾고 말하고 있다. 공자와 태사공의 말은 안자에 대한 다른 어떤 평가보다도 가장 적절하고 의미 있는 평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안자처럼 다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는 어렵다. 때문에 회원의 관계를 끝까지 신중히 하기를 바란 것이다.

箕聖出吾東하니
文風鄒魯同이라
宜多天降瑞요
何乏歲成功가
羣仙尋菊選이요
孤鶴下松風이라
此會雖爲美나
却憂鮮克終이라

기자 성인이 우리 동방에 나왔으니
문화와 풍물이 추나라 노나라와 한가지네.
마땅히 하늘에서 내린 상서로움이 많고
어찌 해가 공을 이룬 것이 없겠는가.
여러 신선들이 국화의 길을 찾아오고
외로운 학은 소나무 바람에 내리네.
이 모임이 비록 아름다우나
문득 끝을 마친 이가 적을까 걱정스럽네.
〈己卯秋會〉

위의 시는 삼구회 회원들을 초청한 송고재 주인 권영옥의 시이다. 다른 회원들의 시는 전부 칠언율시인데 송고의 시만 오언율시이다. 시회의 시는 대부분 칠언율시로 짓는 것이 일반적이다. 권영옥만이 오언율시를 창작한 것은 아무래도 예외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삼구회시고』 전체를 살펴봐도 그리 흔치 않은 경우이다. 오언율시를 창작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자기 집을 찾아온 친구들에게

9) 新豐美酒斗十千 (王維, 少年行, 『王右丞集』).
10) 晏平仲 善與人交 久而敬之 (『論語』, 公治長 第五).

11) 假令晏子而在 余雖爲之執鞭 所忻慕焉 (司馬遷, 管晏列傳, 『史記』).

색다른 맛을 선보이기 위한 배려로 보는 것이 무난할 것 같다.

수련은 우리나라를 유학의 본고장으로 표현하고 있다. 기자가 우리나라에 와서 예악으로 다스렸기 때문에 공맹의 고장과 같다는 것이다. 이러한 견해는 송고 개인의 견해라기보다는 당시 유학자들의 보편적 견해를 대변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함련은 모임 당시의 상황에 대한 묘사이다. 마침 가을 모임이라 들뜬에 오곡이 무르익어 풍요로움이 넘칠 때이다. 함련은 이러한 계절적 풍요를 묘사한 것이다. 하늘이 내린 상서로움이고, 계절이 이룬 공인 것이다. 비록 암담한 시기였지만 天理의 流行은 변함이 없었던 것이다. 이러한 현실의 풍요는 미래에 대한 희망과 확신의 또 다른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경련은 이 날 모임에 참석한 인물들에 대한 묘사이다. 참석한 회원들을 신선에 비유하고 있다. 자신의 집을 찾은 회원들에 대한 미화라고 할 수 있다. 그들은 어느 정도 경제적 시간적 여유 속에 학문을 연마하고 풍요로운 계절의 운치를 즐기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자신들이 처한 비극적 상황을 망각하고 있는 것은 전혀 아니다. 비록 그들이 적극적으로 저항하고 있지는 않지만 암담한 현실 자체를 망각하거나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들의 현실에 대한 인식을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이 국화다. 국화는 가을에 피기 때문에 중앙화라고 하는데 은둔하고 있는 선비를 상징한다. 그래서 꽃 가운데 隱君子라고 한다. 도연명이 五斗米 때문에 출사했던 팽택 현령을 그만두고 고향으로 돌아와 동쪽 울타리 아래 국화를 심고서, 남산을 바라보며 유유자적한 은둔 생활을 했던 것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신선들이 국화가 피어 있는 길을 찾아오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날 사회에 참석한 회원들은 모두 은자들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 경련에 등장하는 소나무 바람에 내리는 외로운 학은 ‘송고’라는 호와 ‘학천’이라는 지명을

고려해 볼 때 바로 송고 자신을 비유한 것이다.¹²⁾

미련은 모임을 주관하는 주인으로서의 염려가 담겨 있다. 이 모임이 비록 아름답고 의미 있는 모임이기는 하나 끝까지 잘 마칠 수 있을까 염려가 되는 것이다. 회원들이 이미 노인들이고, 당시 시국 상황이 일제강점기라 마음 편히 처신할 수도 없는 처지였다. 이들의 일거수일투족은 언제나 요시찰의 대상이었다. 때문에 한시도 마음 편히 살 수 있는 입장이 못 되었다. 이들이 비록 어느 정도 여유를 누리고 살고 있다고 하지만 대부분 극심한 궁핍 속에 지내야만 했다. 여유는 언젠가 오게 될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마음의 자세이지 경제적인 여유는 아니었다. 그야말로 궁핍한 시대에 시인의 아픔은 물질적 고통으로만 끝나는 것은 아니었다. 어느 시대나 은혜와 원수 둘을 같이 섬기기는 어려운 법이지만 이 시대 이들에게도 마찬가지였다.¹³⁾ 어두운 시대 이들은 학문을 위해 일본으로 유학을 가지도 않았고, 탄압을 피해 만주로 이주하지도 않았다. 한편으로는 후학들의 교육을 통해 희망의 불씨를 지피고,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의 고독과 비분을 시심으로 꽃피우며 일생을 살았다.¹⁴⁾ 그런 과정에서 모처럼 동도지인들이 사회를 위해 함께 모인 것이다. 그러므로 주인의 입장에선 아무쪼록 아름답고 의미 있는 결과를 바란 것이다.

3.3 『삼구회시고』의 간행

『삼구회시고』는 1957년 가을에 간행되었다. 그러나 출판소와 출판인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 수 없다. 때문에 당시 이 지방의 문화를 이해하

12) 권순열, 「松阜 權寧玉 研究」, 『古詩歌研究』第15輯, 2005, 13쪽 참조.

13) 권순열, 위의 글, 17쪽 참조.

14) 권순열, 위의 글, 6쪽.

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 그런데 그런 정보가 전혀 없는 것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이때의 삼구회의 임원들을 살펴보면 교정에 정대수, 정서에 이찬신, 장재에 신극정, 유사에 김규현과 이권환이었다. 이와 같은 임사록을 통해 본다면 삼구회의 창립은 이종택에 의해 주도되었고, 후반기를 주도한 사람은 정대수임을 알 수 있다. 정대수는 창립 회원으로 참여하여 『삼구회시고』 간행까지 간여해 「삼구회시고서」와 삼구회안서」를 쓴 것이다. 이것은 그가 당시 생존하고 있었던 삼구회의 회원 중 최고의 문장이었음을 말해 준다.

그리고 시고를 출간해 오래 전하고자 한 것은 이름을 자랑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때의 일을 준비하기 위한 것이다. 그렇다면 뜻을 같이 한 제현들이 배우기를 원하는 것은 다만 주자의 남긴 뜻을 살며시 취한 것이요, 시어의 잘되고 못된 것으로 말하면 작자와 더불어 계교할 겨를이 없다. 세상의 군자들이 이것을 보고 묵묵히 아는 바가 있을 것이다.¹⁵⁾

정대수의 「삼구회시고서」에는 삼구회의 강한 자부심이 염원이 담겨 있다. 자신들의 시고를 간행해 오래도록 전하고자 하는 이유가 이름을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때의 일을 준비하기 위한 자료라는 것이다. 다른 사람들도 단지 이름만을 위해서 글을 지어 세상에 내놓은 경우는 드물다. 다른 복합적이 이유가 있게 마련이다. 그런데 삼구회의 경우는 매우 유별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시고의 간행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다른 때의 일을 준비하기 위해서라는 것은 알기 어렵고 매우 막연한 이유다. 그러나 여기에는 삼구회 회원들의 염원이 담겨 있다고 보여진다. 그들은 비록 어두운 시대를 살고 있

지만 미래에 대한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었던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다른 때’는 미래의 또 다른 이름인 것이다. 그들이 미래를 준비하는 과정에 취한 것이 朱子의 뜻¹⁶⁾이다. 그들은 비록 자신들이 막힌 상황에 처해 있지만 天理가 流行하여 조금도 결함이 없음을 알고 있었다. 그들이 천지 만물과 더불어 살아가며 깨달은 오묘한 자연의 이치가 은연중 드러난 것이 이 시라고 할 수 있다. 때문에 시어의 잘되고 못된 것은 큰 의미를 지닐 수 없었던 것이다.

『삼구회시고』는 3권 784수로 되어 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31년 동안 총 58차례의 시회를 통해서 회원들이 매회 1수씩 784수를 쓴 것이다. 시의 형식으로 보면 칠언율시가 대부분이며 몇 편의 오언율시가 들어 있다. 그런데 『삼구회시고』의 간행에 대해서는 처음 의도와는 조금 달랐던 것 같다. 다시 말하면 삼구회 모임의 지속적인 유지와 『삼구회시고』 출판에 대한 계획에 상당한 변화가 생긴 것이다.

그 시가 약간 편이 되어 지난 을유년 봄에 이미 정리하여 편집을 하였다. 이후에 모인 사람들이 더욱 많아지고 수창한 것이 더욱 쌓였다. 요즘 여럿이 계획하기를 장차 합쳐 인쇄를 하여 각자 집에 거두어 둘 계획을 하고 나로 하여금 잘못된 곳을 교정을 하게 했다. 그리고 서문을 지으라고 했는데 굳이 사양함을 용납하지 않아 이에 앞의 말을 거듭하였다.¹⁷⁾

위의 기록에 의하면 1945년 봄에 시고가 정리되고 편집이 어느 정도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그해 가을에는 시회도 없었다. 그렇다면 시고를 간행할 구체적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왜 그때 간행하지 않고 12년이 지난 1957년에야 간행하게 되었는

15) 刊稿壽傳 非爲銜名 爲備異時故事 然則同志諸賢之其所願學 只是竊取晦翁之遺意 至若詩詞之工拙 不暇與作家計較也 世之君子 覽此而有所默會也歟 (丁大秀, 「三九會詩稿序」).

16) 朱熹, 『論語集註』, 先進 第十一 參照.

17) 其詩若干篇 乙酉春 已爲整輯伊後 盍簪益衆 唱酬增積 今者 僉謀將合部鉅梓 爲各家收藏計 俾余罄其訛謬 因爲之弁 不容牢辭 乃伸前語焉 (丁大秀, 「三九會詩稿序」).

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우선 원고의 양과 출판 경비 등 몇 가지 어려움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삼구회는 1945년까지 35회의 시회를 통해서 535수를 창작하게 되었다. 작품수로 보아서 그렇게 많다고는 할 수 없다. 한 개인의 시집이라면 충분한 양이라고 할 수 있지만 한 집단의 시집으로서는 적은 양이라고 보아야 한다. 편집의 측면에서 보더라도 2권에 불과한 양이다. 이런 점을 고려한다면 삼구회의 시고 간행 시기가 늦어진 것은 시의 분량과도 무관하지 않은 것 같다. 그 후 삼구회는 23회의 시회를 더 갖고, 작품수도 249수를 더 창작한다.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3권 784수의 시를 창작해 간행한 것이다.

4. 결어

일제강점기에 호남에는 많은 시회가 등장했다. 보수 지식인들이 시회를 통해 자신들의 존재 의미를 찾고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였다. 삼구회도 그러한 모임의 하나이다. 창립자는 전남 영광군 유림인 이종택이며, 회원은 이필섭, 김용기, 김곤, 권영옥, 정대수 등 56명이다. 지역별로 보면 영광 지역 출신을 중심으로 하고 고창의 일부 유림이 참여했다. 모임의 명칭을 삼구회로 한 것은 일년 중 3월과 9월에 모임을 개최하기 때문에 그렇게 명명한 것이다. 1927(丁卯)년 봄에 결성되어 그해 가을에 영광읍 송정에서 첫 시회가 열렸다. 그리고 마지막 모임은 1957(丁酉)년 가을 상계에서 있었다. 31년 동안 총 58차례의 시회를 통해서 784수의 시를 지었다. 그리고 3권이 합본된 삼구회 시집인 『삼구회시고』가 발간된 것은 1957(丁酉)년 9월이었다.

보수 지식인들은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언젠가 도래한 새로운 세계를

준비하기 위해 모임을 자주 갖게 되었다. 그러한 모임의 하나가 시회라고 할 수 있다. 그들은 시회를 통해서 천리의 유행을 보고 麗澤講習의 말과 會友輔仁의 가르침을 실천하고자 하였다. 그들은 어두운 시대 절망만이 드리운 사회에서도 희망을 버리지 않고 미래의 싹을 피우려고 애쓰고 있었던 것이다. 삼구회의 규약을 보면 회원이 참석하지 못할 경우 아들이나 손자가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는 선조의 좋은 인연을 통해서 후손들이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기를 바라는 염원이 담겨 있다.

삼구회의 1939(己卯)년 가을 모임이 전북 고창군 성송면 학천리 송고재에서 개최되었다. 이때 김곤은 매우 뛰어난 작품성을 보이고 있다. 김곤은 학의 형상을 하고 있는 아름다운 학천의 경관과 가을의 풍요를 통해서 아름다운 조국의 강산과 머지않아 도래할 새로운 미래를 그린 것이다. 그리고 권영옥은 풍요로운 계절의 운치를 묘사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자신들이 처한 비극적 상황을 망각하고 있는 것은 전혀 아니다. 비록 그들이 적극적으로 저항하고 있지는 않지만 암담한 현실 자체를 망각하거나 외면하고 있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그들의 현실에 대한 인식을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이 국화다. 국화는 가을에 피기 때문에 중앙화라고 하는데 은둔하고 있는 선비를 상징한다. 그들은 언젠가 오래될 새로운 미래를 기다리며 남산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다.

삼구회의 시들은 닫힌 시대 절망의 늪에서 몸부림치는 고통이 치열하지 못하다는 느낌이 강하다고 할 수도 있다. 그리고 방황하는 이웃에 대한 연민이 결여되어 있다고 볼 수도 있다. 지식인이 가져야 할 애민 의식의 부재는 그의 시대에 대한 증거로서는 부족하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기에 실린 시들은 특수한 상황의 시들이라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회원들이 모여 시흥을 즐기며 지은 시들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실린 시들만으로 그들의 시세계를 단정지어 말할 수는 없다. 송고

의 경우만 하더라도 그가 함께 한 시대와 그가 속한 집단을 위해 도리를 다하려고 몸부림쳤다. 조국을 잃고 언제나 가난과 절망 앞에 설 수밖에 없었지만 머지않아 오게 될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다.

■ 참고문헌

1. 자료

『論語』

『周易』

權寧玉, 『松臯集』

三九會, 『三九會詩稿』

司馬遷, 『史記』

王 維, 『王右丞集』

朱 熹, 『論語集註』

2. 저서

權純烈, 『松川 梁應鼎의 詩文學 研究』, 월인, 2002.

3. 논문

權純烈, 「松臯 權寧玉 研究」, 『古詩歌研究』 第15輯, 韓國古詩歌文學會, 2005, 5~25쪽.

〈투고일 : 2007. 6. 30. 심사일 : 2007. 7. 16. 심사완료일 : 2007. 8. 10.〉

〈Abstract〉

A Study on Samguhoi

Kwon, Soon-yoel

Many associations were established in Honam under power of the Japanese imperialism. They were designed to find meaning of existence and prepare a new future by conservative intellectuals. Samguhoi was one of the associations. It was established by Lee Jong-taek, who came from Younggwang, Jeonnam, and its members were 56. In terms of regions, the majority of the members were from Younggwang, and the minority of them were from Gochang. The name of the organization means the members meet in March and September. It began from Fall of 1927 and was kept for 31 years till Fall of 1957. The members of Samguhoi met a total of 58 times and created 784 poems. And they published a poetry collection of 『Samguhoisigo』 on September 1957.

Conservative intellectuals exchanged their information and frequently met to prepare a coming new world. They tried to practise what was taught on natural circulation by ancestors. They did not give up their hope for their bright future in spite of depressed circumstances. The association regulations include their

longing for a new world of descendants through good relations with ancestors.

In Fall 1939, Samguhoi members met in Songgojae, Hakchonri, Sungsongmyeon, Gochanggun, Jeonbuk. At that time, Kim Gon created an excellent poem. He described landscape of beautiful Hakchon and abundance of Fall. Gwon Young-ok represented beauty of prosperous season. They compared beautiful landscape to a bright future of Korea.

Samguhoi members could not help facing poverty and despair as they lost their nation. However, they tried to stick to human reasons and justice for the generation and the association they belonged to. They prepared for a new world to come.

Key word : Samguhoi, Lee Jong-taek, Samguhoisigo, Songgojae, Abundance of Fall, New Generation.